<h1>나 혼자만 레벨업-94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o20937a4799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94화</p>  
<p>10분 전, 헌터 협회 앞.</p>  
<p>등급 심사를 앞당길 수 없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이민성이 결국 폭탄 발언을 터트렸다.</p>  
<p>"저, 이민성은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연예계를 은퇴하고 헌터로서 여러분들께 봉사할 겁니다!"</p>  
<p>고건희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차갑게 식어 버린 기자회견 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해 던진 마지막 한 수였다.</p>  
<p>효과는 확실했다.</p>  
<p>"뭐?"</p>  
<p>"이민성이 은퇴하겠다고?"</p>  
<p>"등급에 상관없이?"</p>  
<p>금방 분위기가 달아올랐다.</p>  
<p>찰칵, 찰칵, 찰칵!</p>  
<p>수많은 카메라가 이민성을 향했고, 흥분한 기자들의 질문들이 쉴 새없이 쏟아졌다.</p>  
<p>"이민성 씨 여기 좀 봐주세요!"</p>  
<p>"아시아 최고의 스타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급 헌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?"</p>  
<p>"배우로서 쌓아 올린 모든 걸 내려놓고 말입니까?"</p>  
<p>'좋았어!'</p>  
<p>이민성은 다시금 자신에게로 집중된 관심에 대만족했다.</p>  
<p>"만약 결과가 좋지 않아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, 많은 분들이 제게 보내 주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마수들과 싸울 겁니다."</p>  
<p>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.</p>  
<p>딱 2년.</p>  
<p>2년만 A급 헌터로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사신 길드의 홍보 활동을 도울 생각이었다.</p>  
<p>아버지의 도움으로 빠졌던 군대 문제나, 요즘 들어 조금씩 슬슬 새어 나오고 있는 잡음들을 한 방에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이었다.</p>  
<p>최고의 위치에서 내려와 목숨을 걸고 시민들을 보호하다!</p>  
<p>흔히 말하는 평생 까임 방지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.</p>  
<p>이민성은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짜릿한 기분을 맛보며 인터뷰를 이어 나갔다.</p>  
<p>"또 저와 뜻을 함께해 주신 사신 길드의 마스터 임태규 사장님과."</p>  
<p>그렇게 한창 기자들이 이민성의 포부를 귀 기울여 듣고 있을 때였다.</p>  
<p>띠리릭, 띠리릭, 띠리릭.</p>  
<p>핸드폰이 울렸다.</p>  
<p>주위 몇몇 기자들이 눈치를 줬다.</p>  
<p>핸드폰의 주인은 재빨리 전화를 끊은 후 연신 고개를 숙여 보였다.</p>  
<p>그 탓에 인터뷰가 방해받았지만 다행히 중단 되는 일은 없었다. 이민성도 못 들은 척 기자회견을 이어갔다.</p>  
<p>그런데 또.</p>  
<p>다른 누군가의 벨소리가 울렸다.</p>  
<p>"아, 거 참."</p>  
<p>"누구 핸드폰입니까?"</p>  
<p>"인터뷰 전에 폰 체크해 두는 건 상식 아닙니까?"</p>  
<p>"당장 꺼요, 좀."</p>  
<p>점수를 딸 기회라고 생각한 이민성은 웃으며 말했다.</p>  
<p>"전 괜찮습니다. 다들 한 통화씩 하시고 계속하시죠."</p>  
<p>하하하하하-</p>  
<p>이민성의 순간적인 재치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.</p>  
<p>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을 줄이야.</p>  
<p>우우웅- 우우웅-</p>  
<p>윙- 윙- 윙-</p>  
<p>갑자기 여기저기서 폰이 울려 대기 시작했다.</p>  
<p>"뭐지?"</p>  
<p>"어, 나도?"</p>  
<p>처음에는 황급히 전화를 껐던 기자들도 이쯤 되자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눈치챘다.</p>  
<p>연락 내용을 확인한 기자들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"협회에서 연락이 왔다고?"</p>  
<p>"아니, 왜 그걸 지금 말해!"</p>  
<p>기자들은 급하게 협회 사이트로 들어갔다.</p>  
<p>그러자 사전에 준비해 뒀다는 듯이 새로운 S급 헌터의 사진과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.</p>  
<p>측정 결과 발표는 오늘이었다.</p>  
<p>'그런데 오전에는 측정실을 쓰지 못한다고 했지 않나?'</p>  
<p>'이민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?'</p>  
<p>'그럼 측정실을 비운 건 이민성의 등급 심사 때문이 아니라 이 S급 헌터를 위해서?'</p>  
<p>그때 기자들의 머릿속에 한 남자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다.</p>  
<p>설마!</p>  
<p>방금 그, 고건희 협회장을 따라 안으로 들어간 남자!</p>  
<p>오늘 측정실을 쓴 사람은 그 남자가 유일했다.</p>  
<p>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면 그 남자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?</p>  
<p>"기, 기자님들?"</p>  
<p>굶주린 짐승의 눈으로 변한 기자들이 이민성을 무시하고 협회 건물을 향해 달려들었다.</p>  
<p>우르르르-</p>  
<p>우진철이 눈빛으로 사인을 보내자 감시과 헌터들이 손을 펼쳐 바리게이트를 만들었다.</p>  
<p>"좀 들어갑시다!"</p>  
<p>"S급이 나왔다면서요! 그런 건 미리 고지를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!"</p>  
<p>"비켜 보라고요!"</p>  
<p>기자들이 맹렬히 달려들었지만 전원 헌터들로 이뤄진 감시과 직원들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.</p>  
<p>"뭐, 뭐야?"</p>  
<p>순식간에 찬밥 신세가 된 이민성이 당황한 얼굴로 매니저에게 달려가자, 매니저가 방금 자신이 확인한 핸드폰 화면을 보여 줬다.</p>  
<p>"S급?"</p>  
<p>이민성은 넋이 나간 얼굴이 됐다.</p>  
<p>"하필 오늘 S급 헌터가 나왔다고?"</p>  
<p>A급 헌터가 되어서 세간의 이목을 한 몸에 받으려고 했는데, 어디서 튀어나온 S급 헌터 하나가 모든 걸 망쳐버리다니.</p>  
<p>이민성은 고개를 가로저었다.</p>  
<p>'아냐, 분명 뭔가 잘못된 거다.'</p>  
<p>S급이 무슨 자판기 커피처럼 동전만 넣으면 툭 튀어나오는 등급도 아니고.</p>  
<p>혹시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게 없을까?</p>  
<p>마침 이민성의 눈에 누군가와 통화하며 뒤늦게 계단을 올라가는 기자 한 사람이 들어왔다.</p>  
<p>내일 나갈 기사 제목이 어떠냐고 조언을 구하던 그 신문사 기자였다.</p>  
<p>"저기, 임 기자님!"</p>  
<p>이민성의 다급한 목소리에도 임 기자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지나쳤다.</p>  
<p>"아, 이민성 씨. 제가 좀 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."</p>  
<p>"네? 임 기자님. 임 기자님!"</p>  
<p>이민성은 임 기자의 등 뒤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의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었다.</p>  
<p>"...그래. 내일 헤드라인은 '눈물의 E급, 환희의 S급 되다' 이걸로 쫙 깔라니까."</p>  
<p>이민성이 힘없는 눈빛으로 주위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이미 자기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.</p>  
<p>이민성은 털썩 주저앉았다.</p>  
<p>"뭐야... 이게."</p>  
<p>그가 힘없이 중얼거리고 있을 때, 협회 문이 확 열리고 대한민국 10번째 S급 헌터가 모습을 드러냈다.</p>  
<p>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촤!</p>  
<p>진우가 눈을 휘둥그레 떴다.</p>  
<p>'뭐야, 이건?'</p>  
<p>카메라 정면에서 대문짝만하게 찍힌 진우와 그 뒤에서 안타까워하는 백윤호, 그 옆에서 쓴웃음을 짓는 최종인까지 함께 렌즈에 담겼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점심시간.</p>  
<p>오전 작업을 마친 채굴팀 헌터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점심을 들었다.</p>  
<p>채굴이 주 업무이지만 낙반이나 붕괴 사고가 일어날 일이 없다 보니 분위기는 자유로웠다.</p>  
<p>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우고 드러누운 헌터들도 있고,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시덕거리는 헌터들도, 안주 하나를 놓고 둘러앉아 반주를 즐기는 헌터들도 있었다.</p>  
<p>"어?"</p>  
<p>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헌터 하나가 깜짝 놀라며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.</p>  
<p>"이거 성 씨 아녀?"</p>  
<p>이성구가 귀를 쫑긋 세웠다.</p>  
<p>"진짜네?"</p>  
<p>"성 씨가 뉴스에 나오는데?"</p>  
<p>잘못 들은 게 아니었다.</p>  
<p>"내 그럴 줄 알았지."</p>  
<p>반주 석 잔에 얼굴이 벌게진 이성구가 기다렸다는 듯 동료들이 모인 곳으로 뛰어갔다.</p>  
<p>그러면서도 그의 입은 쉴 줄을 몰랐다.</p>  
<p>"내 그놈이 눈을 부라릴 때부터 알아봤어! 그 막돼먹은 놈이 얼마나 몹쓸 짓을 저질렀는지 나도 한번 보자고!"</p>  
<p>이성구의 목소리가 하도 컸던 까닭일까?</p>  
<p>"성 씨가?"</p>  
<p>"성 씨가 뭔 죄를 저릴렀댜?"</p>  
<p>배 팀장을 포함, 근처에 있던 채굴팀 헌터들이 죄다 몰려왔다.</p>  
<p>손바닥만 한 핸드폰 액정을 꽉 채운 진우의 얼굴 아래로 커다란 자막이 지나가고 있었다.</p>  
<p>[...황동석, 차해인을 이은 대한민국의 열 번째 S랭크 헌터 성진우 씨가 지금 막...]</p>  
<p>"헉!"</p>  
<p>진우를 발견한 이성구의 동공에 지진이 일어났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유진건설 회장실.</p>  
<p>문 앞에선 유진호가 짧게 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"후."</p>  
<p>덜컥.</p>  
<p>매끄럽게 열린 문을 따라 시선을 들어 올리니,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도 돌리지 않는 아버지가 보였다.</p>  
<p>"들어와라."</p>  
<p>대답을 하면서도 유명한은 서류에 사인 중이었다.</p>  
<p>유진호는 유명한 곁에 섰다.</p>  
<p>잠깐 아들의 얼굴을 확인했던 유명한은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 나갔다.</p>  
<p>'여전하시네, 아버지는.'</p>  
<p>예전 같으면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기가 눌려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쳤을지 모른다.</p>  
<p>그러나 지금은 달랐다.</p>  
<p>"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."</p>  
<p>"성진우 헌터에 대한 이야기냐?"</p>  
<p>"네."</p>  
<p>유명한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"그래. 어떻게 됐."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유명한의 폰이 울렸다.</p>  
<p>드르르르-</p>  
<p>"잠깐."</p>  
<p>유명한이 손을 들어 유진호의 말을 막았다. 메시지를 확인한 유명한의 눈이 조금 커졌다.</p>  
<p>'아버지가 놀라실 때도 있네?'</p>  
<p>유진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"...네가 봐야 할 게 있다."</p>  
<p>"예?"</p>  
<p>유명한은 대답 대신 빠르게 리모컨을 움직여 벽면에 걸린 대형 TV를 켰다.</p>  
<p>그러자 속보가 흘러나왔다.</p>  
<p>[네. 방금 확인됐습니다. 오늘 S등급으로 판명 난 헌터는 각성 후 각성을 거친 재각성자이며, 협회 소속으로 활동했었던 E등급 헌터 성진우 씨라고 합니다.]</p>  
<p>리포터의 들뜬 목소리가 현장의 분위기를 잘 말해 주고 있었다.</p>  
<p>무심하게 듣고 있던 유진호가 '성진우'라는 이름에 화들짝 놀랐다.</p>  
<p>'헉!'</p>  
<p>그 이어 바뀌는 화면.</p>  
<p>화면 안에는 분명히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무표정한 얼굴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.</p>  
<p>형님이었다.</p>  
<p>'확실해. 형님은 지금 귀찮으신 거야.'</p>  
<p>한동안 형님께 착 달라붙어 지냈더니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인지 느껴졌다.</p>  
<p>아니, 그것보다 S급이라니?</p>  
<p>형님이 대단한 거야 알고 있었지만, 그 대단함의 정도가 자신의 예상을 아득히 초월하고 있었다.</p>  
<p>동시에.</p>  
<p>'그런 힘을 가지고서도 매일 던전에 들어가 수련에 매진하셨던 건가?'</p>  
<p>밀려드는 경외감.</p>  
<p>TV에서 진우의 이름을 연신 떠들어 대자 계속해서 그의 옆을 지켰었던 유진호의 가슴이 벅차올랐다.</p>  
<p>삑-</p>  
<p>TV가 꺼지며 형님의 얼굴도 사라졌다.</p>  
<p>유진호는 아쉬운 표정을 했다.</p>  
<p>"계속하거라."</p>  
<p>이야기를 계속해 보라는 말.</p>  
<p>유진호는 미리 준비했던 대로 크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.</p>  
<p>"죄송합니다, 아버지. 형님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."</p>  
<p>유명한의 얼굴이 굳어졌다.</p>  
<p>"...그래. 성진우 헌터는 뭐라고 말하며 거절하더냐?"</p>  
<p>"그게 형님께선..."</p>  
<p>머뭇거리던 유진호가 고개를 빼꼼 들고 말했다.</p>  
<p>"길드를 만들 거니까 부사장 자리가 탐나면 들어오라고..."</p>  
<p>멈칫.</p>  
<p>화를 내시거나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다.</p>  
<p>그리고 이내.</p>  
<p>피식.</p>  
<p>유명한이 소리 없이 웃었다.</p>  
<p>포커페이스로 알려진 유명한 회장이 아들 앞에서 표정 변화를 보인 것이다.</p>  
<p>'왜 저러시지?'</p>  
<p>차마 이유를 묻지는 못하고 눈만 이리저리 굴리는 유진호.</p>  
<p>유명한이 웃음기를 지우고 물었다.</p>  
<p>"내가 왜 유진 길드를 만들려고 하는 줄 아느냐?"</p>  
<p>"헌터 사업은 돈이 되니까...가 아닙니까?"</p>  
<p>"아니다."</p>  
<p>유명한은 단호히 말했다.</p>  
<p>"돈이라면 지금도 썩어 넘칠 정도로 많다. 그 돈 몇 푼을 더 벌자고 대형 길드들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는 짓을 진행할 것 같으냐?"</p>  
<p>돈 때문이 아니라는 말일까?</p>  
<p>유진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"그럼...?"</p>  
<p>유명한이 들고 있던 펜을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았다.</p>  
<p>"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다."</p>  
<p>유명한의 진중한 눈빛에 유진호도 마른침을 꼴깍 삼켰다.</p>  
<p>"헌터들의 힘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. 한 사람의 힘이 국가의 무력과 맞먹는 경우도 이제 드물지 않지."</p>  
<p>이른바 국가 권력급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 최강의 헌터들.</p>  
<p>유명한은 그런 이들을 일컫고 있었다.</p>  
<p>"이미 약소국 일부에선 헌터들이 왕처럼 군림한다고 하더구나. 이런 상황에서 법과 공권력이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냐?"</p>  
<p>유명한의 목소리는 무거웠다.</p>  
<p>하지만 설명을 듣고 있는 유진호는 문득 자신이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.</p>  
<p>어째서일까?</p>  
<p>'아...'</p>  
<p>나까지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해주셨다.</p>  
<p>처음으로 부정의 단면을 엿본 것 같아 유진호는 조금 기뻤다.</p>  
<p>유명한의 설명은 이어졌다.</p>  
<p>"나는 길드를 만들어 신뢰할 만한 헌터들을 모으고 싶었다. 돈이나 인맥이 필요해서가 아닌,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헌터들을."</p>  
<p>유명한은 다시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웠다.</p>  
<p>"너는 벌써 그런 사람을 얻은 것 같구나."</p>  
<p>"예."</p>  
<p>유진호는 즉답했다.</p>  
<p>아버지가 말하시는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들었지만, 형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 만큼은 확실했으니까.</p>  
<p>유명한은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좋다."</p>  
<p>"네?"</p>  
<p>"합격이다."</p>  
<p>무엇을 합격했다는 말일까?</p>  
<p>유진호는 여전히 숙이고 있었던 고개를 뒤늦게 들어올렸다.</p>  
<p>"너에게 유진 길드를 맡기마."</p>  
<p>"예?"</p>  
<p>"유진 길드를 키워 보거라.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강한 헌터들을 네 사람들로 만들어라. 앞으로 그들이 그 어떤 형태의 재산보다 귀해질 것이다."</p>  
<p>유명한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. 그의 확신이 컸던 만큼, 유진호의 기쁨도 컸다.</p>  
<p>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게 아닐까?</p>  
<p>"감사합니다, 아버지!"</p>  
<p>만면에 미소를 띤 유진호가 90도에 가깝게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.</p>  
<p>그 모습을 유명한은 흐뭇하게 지켜보았다.</p>  
<p>그런데 이어지는 유진호의 대답은 유명한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이었다.</p>  
<p>"하지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."</p>  
<p>"음?"</p>  
<p>유명한의 눈썹이 꿈틀거렸다.</p>  
<p>유진 건설의 자금력은 차후 만들어질 유진 길드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었다.</p>  
<p>벌써 S급 헌터 몇몇과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오고갔다.</p>  
<p>유진 길드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초대형 길드가 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.</p>  
<p>유진호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터였다.</p>  
<p>'그러니 마스터가 되겠다고 했겠지.'</p>  
<p>헌데 막상 길드를 주겠다니 사양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?</p>  
<p>그새 겁이라도 난 것일까?</p>  
<p>유명한은 유진호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간신히 눌러 잡으며 억지로 목소리를 냈다.</p>  
<p>"...어째서냐?"</p>  
<p>그러자 고개를 든 유진호가 기분 좋아 보이는 얼굴로 미련 없이 대답했다.</p>  
<p>"저는 형님 길드로 갈 겁니다."</p>  
<p>=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